



해양경찰청

보 도 자 료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보도 일시	2022. 7. 18.(월) 즉시	배포 일시	2022. 7. 18.(월) 11:30
담당 부서	수사국 형사과	책임자	과 장 장 대 운 (032-835-2054)
		담당자	계 장 박 홍 식 (032-835-2158) (010-4452-3435)

해상 강력범죄 등 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 범죄예방, 국민의 알권리 및 공공의 이익에 따라 얼굴 등 공개 -

해양경찰청(청장 정봉훈)은 최근 살인 등 해상 강력범죄 발생에 따라 범죄를 예방하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오는 8월경부터 범죄자의 얼굴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

최근 발생사례를 보면 '21년 12월 컨테이너운반선 선원 A씨(23세)가 조타실에서 근무 중인 선장 B씨(44세)를 살해한 사건과 '22년 5월 부산시 기장군 동백항에서 C씨(43세)가 차량을 바다에 빠트리려 여동생이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다.

수사과정에서 범인의 얼굴과 나이 등 신상정보는 비공개가 원칙이나,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등에 규정된 범죄 중 범행의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사건, 충분한 범행 증거가 있는 사건은 범죄 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해상 강력범죄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는 관련법과 규정에 따라 법률전문가 등 내·외부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신중하게 판단할 계획이라며 범죄예방과 국민의 알권리 차원, 피의자 인권 보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행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